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제주 아이들의 꿈을 지원한 36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제주지역본부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 지원
아동권리 향상위한 사업 확대
"수많은 후원자 도움에 감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제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많은 어른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의 올해 마지막 연재 순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제주에서 진행한 아동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보육원, 공동생활가정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가정 아동 1000여명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후원금품은 16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외에도 수술비, 치료비, 주거보증금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지원했다.

특히 재단은 꿈을 키울 재능과 열



제주아동권리기자단 대표아동 및 가족들이 함께 '희망찬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동참을 약속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정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인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3명의 지역인재를 발굴해 총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초록우산의 시계는 더욱 바빠 돌아가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환경을 갖추지 못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만한 아동가정을 찾아 노트북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키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0세대를 대상으로 2억2000만원 규모의 주거 개보수, 방범창 설치 등의 사업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일 뿐 아니라 제주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나서는 다양한 옹호사업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아동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과 아동권리기자단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래에서 온 투표'는 아동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캠페인으로, 2020년 국회의원 후보 9명에게 전국 2만명의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아동권리기자단은 도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이미지, 아동들이 원하는 집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아동들이 직접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동선언문'을 작성했고, 이 선언문은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 아동의 목소리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록우산 제주본부 김희석 본부장은 "제주도내 수많은 후원자와 도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주 아동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에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 이슈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초록우산이 되겠다"고 밝혔다. <끝>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JDC 청소년캠프 매우 유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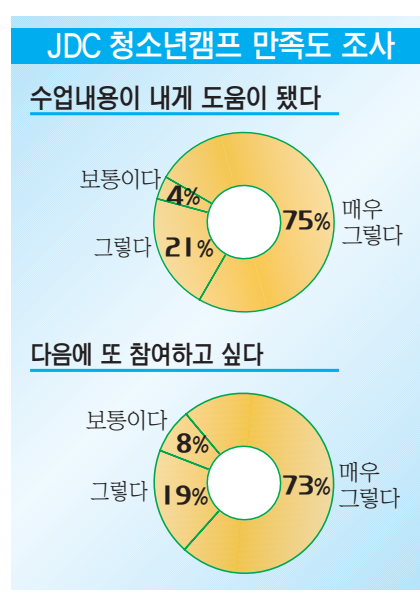
만족도 조사...96% "흥미로워"
"수업시간 확대했으면" 주문도

제주의 환경·문화 분야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실시한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캠프'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별종위기 동식물과 제주 문화재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평가다.

본보는 JDC와 함께 지난 11월 총 4회에 걸쳐 도내 초(4~6)·중학생을 대상으로 '2020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48명 중 46명(96%)이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됐다"고 응답했다. 37명(77%)이 '매우 그렇다', 9명(19%)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률은 4%(2명)였다.

또 96%가 "수업 내용이 내게 도움이 됐다(매우 그렇다) 75%, '그렇다' 21%"고 답했으며, "또 참여하고 싶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한 참가자는 92%(매우 그렇다) 73%, '그렇다' 19%)인 44명이었고, 4명(8%)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JDC가 지원하는 청소년캠프가 JDC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만큼 지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96%가 "청소년캠프를 진행하는 JDC의 노력이 JDC를 알리는데(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JDC가 앞으로 청소년캠프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94%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개선사항으로 수업 시간 확대를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도교육청 1월 1일자 207명 인사 단행

행정국장에 오용탁

제주도교육청은 2021년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207명에 대한 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인사현황을 보면 승진 31명, 퇴직 17명, 공로연수 9명, 신규 21명, 전보 109명, 파견 6명, 파견복직 7명, 복직 3명, 전출·전입 4명 등이다.



오용탁 국장

주요 인사를 보면 교수형 현 행정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이 행정국장으로 승진·전보발령 됐다.

이어 교육예산과장에 박승윤 교육재정과장, 교육행정과장에 임희숙 교육전문위원, 교육시설과장에는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교육훈련 과에서 복귀하는 송성환 서기관은 소통지원관, 양운삼 서기관은 교육재정과장으로 각각 전보발령 됐다. 이 밖에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은 제주도

서관장으로, 문성인 소통지원관은 교육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서기관에는 홍순심, 한봉순 사무관 2명이 승진했으며, 사무관 승진은 안전복지과 현경희 주무관을 포함, 7명이 승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부터 지방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개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크리스마스 '눈' 대신 '비' 예보

올해 크리스마스에 제주엔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이날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5일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 북서부엔 24일 밤부터 25일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다만 산지엔 눈이 내리는 곳이 있

겠다.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24일 낮 동안 비가 내리다가 이날 밤부터 25일 아침까지는 한라산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24일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9~11℃, 낮 최고기온은 12~15℃로 예상됐다.

크리스마스 당일엔 기온이 푹 떨어질 전망이다. 25일에는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최저기온 4~6℃, 낮 최고기온 8~11℃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다. 강다혜기자



고등어가 풍년 23일 제주시 조천항에서 어린이들이 배에서 고등어를 꺼내 운송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이상민기자

영지학교 전공과 신입생 모집

제주영지학교는 오는 29일까지 '2021학년도 전공과 신입생' 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공과는 산학 연계를 통한 직업 재할 훈련으로 운영되며, 모집 대상

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예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도내 거주 장애인이다. 전형일은 2021년 1월 2일이며 면접, 직무능력, 작업능력, 기초학 습능력 등 취업 중심 직업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송은범기자

제주를 지키는 반대에

함께 합니다

제주도민 대다수는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대

57.9

찬성 37.1

성산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은?(%)
제주 mbc여론조사(2020.09)

1월에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제2공항을 반대한다고 답해주세요!

로태이트 이종민 송상용 송승호 김동윤 김은희 김민수 이상재 김찬 흥린 이남밖 예없주계 양동윤 박이찬 오신정 산채비범발 유상엽 김광철 윤항미 문애린 섀도르 이준호 강정효 양창권 현관명 현순옥 김봉규 김현진 고아무르강 김지수 김정도 이옥분 안소정 김주희 박희범 박영희 한가희 백혜선 양길현 김여선 김철현 김새롬 백신옥 우인정 고길선 장봉수 현우식 신현정 황현진 조약골 고통한 김순애 김덕진 전서영 제주자연 노시원 송정기 홍경자 송지영 송철민 이영권 김성중 김명환 이은산 이옥분 김복자 은종복 이상영 강성규 부석희 고명희 이정은 김성환 이정숙 현오안 김동식 김택택 조미영 백희봉 고재민 이정숙 강대준 황용운 박주영 장영희 한혜숙 박병욱 이천수

제2공항 반대 릴레이광고는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광고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5-0997-0997-93 제주제2공항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